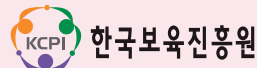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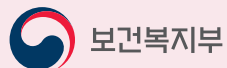




# 자녀를 위한 권리존중의 일상화

우리 함께 노력해요!



01

## 부주의한 지도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등 주 양육자의 말과 행동에서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주 양육자는 이것이 아동학대 사고의 니어미스(Near Miss)\*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지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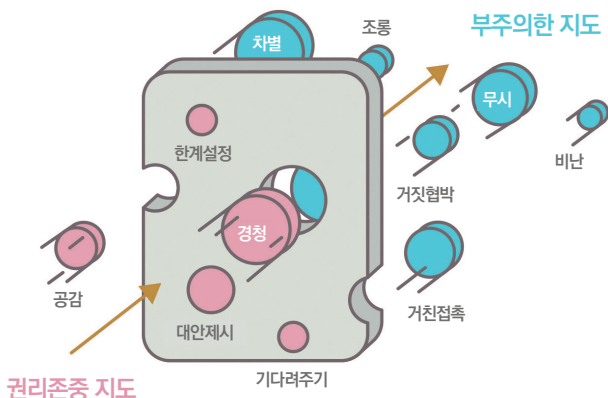
경청, 공감 등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도의 요소 대신 무시,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요소가 나타난 상태를 의미

니어미스  
(Near Mis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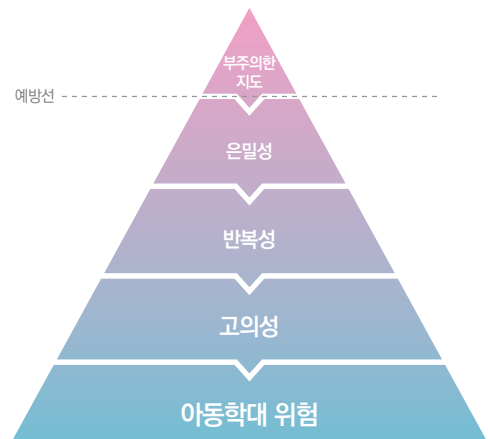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



무시, 비난, 조롱, 거짓협박, 차별, 거친 접촉 등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 보다는 기다려주기, 경청하기, 정서 공감, 한계 설정, 대안 제시 등 **권리존중 지도의 요소**들을 통해 양육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부주의한 지도 요소를 인식, 개선하지 못한 채 반복성, 고의성을 띄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 ⚠ 부주의한 지도

- ⚠ 무시 “또그만 게 뭘 안다고 그래.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
- ⚠ 무시 “(아이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며) 그건 네가 결정할 일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
- ⚠ 비난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 거야. OO이가 자꾸 오줌 싸니까 엄마 힘들잖아.”
- ⚠ 비난 “엄마, 아빠 빨리 회사가야 해. 너 때문에 회사도,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양말 신고라니까.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 거야?”
- ⚠ 비난·조롱 “신발 제대로 신고랬지!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넘어질 줄 알았어.”
- ⚠ 거짓·협박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 있게 할 거야!”
- ⚠ 거짓·협박 “(밥 안 먹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 보여 줄 거야!”
- ⚠ 차별 “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OO이는 왜 혼자 정리 못 하는 거야?”
- ⚠ 차별 “네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장난감 양보 하는 거야.”

## ♡ 권리존중 지도

- ♡ 공감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궁금했구나~”
- ♡ 공감 “OO이가 자전거 타러 나가고 싶구나~”
- 한계설정 “지금은 어두워서 위험해. 내일 오전에 함께 타러 가볼까?”
- 기다려주기 “언제 타러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볼까?”
- ♡ 공감 “이불이 축축해서 놀랐겠네. 괜찮아~ 엄마도 어렸을 때 이불에 오줌 싼 적이 있었어. 불편하지? 씻고 옷 갈아입자~”
- ♡ 대안제시 “OO아, 양말 신자~ 양말 신기 힘들면 아빠가 도와줄게.”
- ♡ 한계설정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 신발을 바르게 신어보자~”
- ♡ 한계설정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OO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울음 그치면 엄마한테 이야기해줄래? 기다려줄게”
- ♡ 경청 “OO이 밥 먹기가 힘들어?”
- 한계설정 “당근 조금 먹어볼까?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대~”
- 대안제시 “밥을 안 먹으면 아빠랑 놀 때 힘이 안날 것 같은데 작게 잘라서 조금만 먹어볼까?”
- ♡ 공감 “혼자서 정리하는 게 힘들었구나.”
- 대안제시 “힘들면 아빠랑 동생이랑 다 함께 정리하자.”
- ♡ 기다려주기 “OO아 동생이 이 장난감으로 놀아해보고 싶은가봐~ 동생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

## 영유아에 대한 관점 전환하기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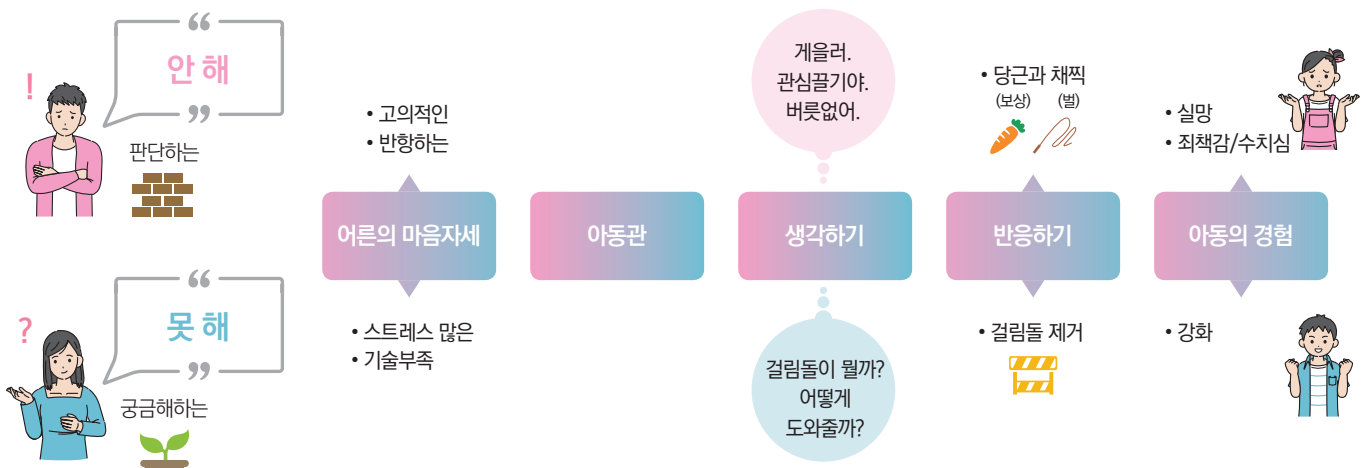
아직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 행동 이해하기 (Reframe The Behaviour)

“아이들은 할 수 있으면 잘한다.”

- Ross Greene



“아이를 달랠려면, 아이의 다른 면이 보인다.”

- Dr. Stuart Shanker

아이들이 실수행동을 보이면, 스트레스 탐정이 되어야 한다. ... 걸림돌을 찾고 제거하자.

스트레스 원인찾기

줄이기

불충족 욕구 찾기

채우기

부족한 기술 찾기

가르치기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아이는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돼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해  
보세요.

보호자가 정해진 규칙보다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자 노력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하세요.

아이들은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이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 꾸짖을 경우 왜 지금 야단을 맞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훈육은 되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꾸짖지  
마세요.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제지하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오늘은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반경에 혼란을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훈육할 때 “경찰아저씨가 혼내줄 거야” 등 다른 사람을 개입 시키면 훈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작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타인이 보는  
앞에서 꾸짖지  
마세요.

아이의 잘못을 타인 앞에서 꾸짖으면 아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반발 심리만 강해질 수 있어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이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상처만 남게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하지  
마세요.

체벌 전 올바른 훈육을 위한 진정한 목적을 떠올려 보세요.



##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방법 및 영유아 지원

아동학대  
신고기관

- 국번없이 112에 신고(신고 일원화)  
※ 신고 시 관할 시·군·구, 경찰서 연결
-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열람

## 열람 요청

- 영유아의 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영상 정보 열람 요청 가능
- 원장에게 열람요청서 제출 → 열람장소와 일시 등 협의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피해사실 적시)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열람 가능

## 열람

- 보호자(열람 요청자) 및 원장 열람 원칙
-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어린이집 내에서 열람
-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장과 협의하여 열람 범위 결정  
※ 열람 시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마스크 처리 등)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21.4.개정)

아동학대  
신고내용

- 피해(의심)아동의 현재상황: 피해(의심)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등
- 피해(의심)아동·아동학대행위(의심)자·신고자 관련사항: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피해(의심)아동과의 관계 등
- 아동학대 의심사항: 아동학대 유형, 정도 및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등
- 기타: 추가 피해아동 여부, 학대 행위자의 상황,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등

학대 피해  
영유아  
지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어 피해아동·부모 대상 상담치료 지원, 병원 연계 등 지원

가정 내  
영유아  
지원

- 부정적인 신체접촉 경험을 극복하도록 위협적,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안아주고 달래주기
- 사회·정서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기 쉬운 학대 피해 영유아를 이해하고 정서적 연결과 요구에 맞게 돌봐주기
-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 부드럽고 일관된 태도로 대화하기
- 영유아의 부정적 행동을 판단하기 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참고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go.kr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인쇄물, 동영상, 소식지, 포스터, 뉴스레터 등)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ps/main.do

• 부모교육 매뉴얼, 동영상 등 제공 • 자녀연령별 육아정보 제공

